

# 내부망 위협징후 탐지체계 (ConnecTome NDR)

APT 공격 등 고도화·지능화된 방식으로 경계선 방어체계를 우회 침투하여 탐지되지 않은 채 내부망에서 은밀히 활동 중인 위협을 탐지하는 솔루션입니다.



## 필요성



사이버 공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통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통신데이터에는 공격자의 움직임(통신사실)이 숨어 있습니다.



01

내부망이 해킹된 상태로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.(침해를 전제로 한 위협 대응 방식 필요)

02

방화벽, IDS/IPS, 백신, APT 대응체계 등을 우회한 고도화·지능화된 공격행위 (악성 호스트) 식별 필요

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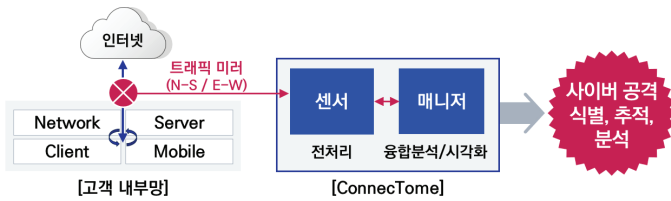
내부망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안관점의 IT자산 운용 및 위협 상황의 실시간 인식 및 대응 필요

04

식별된 침해지표 또는 위협 인텔을 기반으로 내부망 위협 탐지 및 침해사고 분석 체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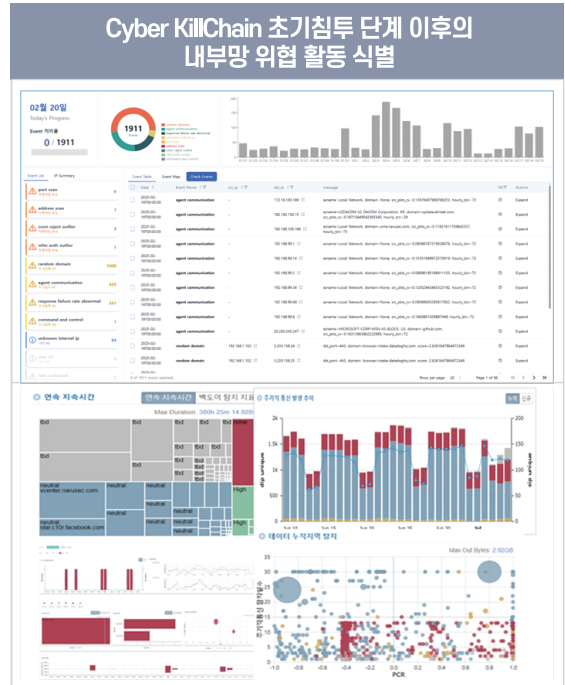


## 운용개념



## 주요기능

- 실시간 상황 이벤트 발생 및 분석 기능 제공
  - 센서/매니저, 네트워크/자산운용 변화
  - IoC 기반 위협 탐지, 통신행위 기반 이상징후 등
- 실시간 운용상황 및 위협상황 인식 시각화 제공
  - 센서/매니저/네트워크/로그/자산운용 변화, 통신 현황 등 종합적인 운용상황 파악 가능
  - 탐지 위협 등 대한 종합적인 위협상황 파악 가능
- 내부망 위협 추적(헌팅) 및 침해 분석 기능 제공
- 내부망 위협의 인터넷 추적·분석(N-TIS 연계) 등



- 기존 보안체계를 우회 침투하여 내부망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**지능형 지속 위협(APT) 공격 식별**
- 목표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특수 목적을 수행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**맞춤형 표적 공격 식별**
- 조직 내부자의 악용/실수 또는 HW/SW 공급(유지보수) 업체를 통한 **공급망 위협 식별** 등

네트워크 트래픽과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내부망 위협 징후를 식별하여 대응하세요.

# “네트워크 통신데이터를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!”

## 네트워크 통신데이터에 대한 ZeroTrust 원칙을 적용한 솔루션

### 특장점

- 01. On-Premise 또는 Cloud 환경을 기반으로 위협 및 이상징후 식별에 특화된 독창적인 통신데이터 수집**
- 02. 공격자 통신행위 탐지를 위한 통신특성 변화관리 기반의 지능형 이상징후탐지모델 및 명령제어채널 자동 탐지 엔진(미국특허)을 적용**
- 03. ConnecTome에서 식별한 위협에 대한 N-TIS 기반의 인터넷 위협 경로 분석 지원**  
\* N-TIS : (주)나루씨큐리티(위협대응센터)에서 추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위협분석을 지원하는 서비스

- IP 주소, 포트, 연결 상태, 전송된 바이트 수, 프로토콜 정보 등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정보
- HTTP, DNS, FTP, Kerberos, SMB, SSH, SSL/TLS 등 다양한 프로토콜 트래픽 정보
- 응용계층 프로토콜 헤더값 분석/ 처리 후 저장
-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파일에 대한 정보 (파일의 해시값, 파일 이름, MIME 타입 등)
- ARP, ICMP, IP, TCP/UDP 기반의 세션 추적이 필요한 정보
- 네트워크 연결에서 발생하는 IP 주소의 지리적 위치 정보

**내부망 통신 및 독창적인 메타데이터 생성**

- ▶ **최초침투 단계**  
C2통신, 웹shell 통신 탐지 등(00개)
- ▶ **축면이동 단계**  
스캔행위, 내부이동 탐지 등(00개)
- ▶ **거점장악 단계**  
원격연결, 관리자PC 장악 등(00개)
- ▶ **정보유출 단계**  
DB서버 장악, 유출징후 등(00개)

**총 00개의 위협 탐지 모델 기반 이상 징후 분석**

**커넥티엄** ↔ **N-TIS**

인터넷 접속 악성 IP ↔ 내부망 접속 악성 IP

**커넥티엄과 N-TIS 연계를 통한 위협 분석**

### ConnecTome 구성 환경



“ ConnecTome(커넥티엄)은 내부망에서 공격자의 통신행위 탐지모델을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식별하는데 특화된 NDR 솔루션입니다. ”

- 01.** 조직 내부망에서 탐지되지 않은 채 은밀히 활동하는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.
- 02.** 위협 식별(탐지) 시 공격 경로 추적 및 피해 자산 식별이 가능합니다.
- 03.** 조직 내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유출 징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.
- 04.** 침해지표를 기반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 헌팅(정찰)이 가능합니다.
- 05.**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분석 및 침해사고 조사 분석이 가능합니다.